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14호

01 다채로운 이벤트

한국/ 홍콩/ 호주/ 파나마

03 시

지고의 어머니 칭하이

04 수행의 길목에서

다른 수행단체에서 체험한 것들

07 지혜어록

진정한 스승과 정도(正道)/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09 스승과 제자 사이

오래된 입문자의 증언

12 스승님의 농담

출납원을 찾음/ 의사들은 왜 마스크를 쓰나?/

가장 좋은 흥분제/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13/ 뒤표지 안쪽 무상예술

천상의 옷과 보석의 비밀이 벗겨지다/

지혜안으로 천상의 보석을 감상하라 - 스승의 집

14 영화광장

천국보다 아름다운

15/ 뒤표지 바깥쪽 영혼의 고양이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칭하이 무상사의 시의 정원으로 오세요!

16/ 앞표지 안쪽 불멸의 시

스승과 나/ 메모/ 당신은 아시나요?/ 날 잊지 말아요

2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놀라운 보호력

24 건강정보

기생충학과 채식

27 스포트라이트

유전공학 - 신이 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누가 이 몸에 사는가?

29 관음웹사이트

30 전 세계 연락처

출판일자 : 2000. 12. 2.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林永光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76, 2207-8090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파나마 1989. 11. 29 (원문 영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신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신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한다면, 조만간에 모든 차별과 증오와 오해가 사라질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89. 11. 26 (원문 중국어)

영적 수행자임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한다면, 우리 아직도 100%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88. 12. 6 (원문 중국어)

우리 영적 수행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88. 12. 20 (원문 중국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진리의 달성이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되게 해달라고 초조하게 안달하며 신에게 졸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변함없이 평온하고 차분하게 그날 그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89. 1. 12 (원문 중국어)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대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습관이 될 겁니다. 모든 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니까요.

한국 소식

사랑의 바다가 넘치는 사랑으로
한국을 포용하다

【서울】 2000년 5월 8일, 서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승님은 참석한 1만 여명의 청중들에게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잠시 기도하자고 청했다. 그에 따라 청중들은 강연장에서 스승님과 함께 잠시 기도했다. 그 후 한국 전쟁 50주년인 6월 13일에 전 세계가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한은 문화교류 등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남북의 가족들이 서로 상봉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상회담 이후에 극적인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해, 스승님의 유럽 순회강연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코소보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두 개의 한국은 스승님의 아시아 순회강연이 끝나자마자 평화의 길로 발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선 한국 국민들조차 믿기 힘들 역사적 대변혁이 일고 있다. 이것은 정치 분야 전문가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지난 남북대화에서 오랫동안 실망을 거듭해온 한국 국민들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밀접히 연관된 강대국들도 매우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 회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8월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 두 정상은 또한 문화, 스포츠,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정상이 앞으로 남한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스승님의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동안 넘치는 스승님의 사랑에 감싸인 이후, 지금 온 한반도는 평화와 사랑의 기운으로 넘치고 있다.

비디오 강연: 내면의 전능한 힘을 여는 법

【안동】 7월 9일 스승님의 축복으로 “내면의 전능한 힘을 여는 법, 진선미의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로 예향의 고장 한국 안동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안동은 한국의 전통왕조 때부터 매우 학식있고 예절바르며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의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강연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안동지역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등지의 입문자들이 신실하게 포스터와 전단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일요일인 강연 당일도 기온이 약 30도로 매우 높아 거리에는 거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강연시작 1시간 전부터 간편한 옷차림을 하거나 손에 부채를 든,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젊은 구도자는 인터넷을 통해 강연 소식을 접하고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소요되는 거리를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스승에 대한 환희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람들은 강연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지켜 보았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많았는데 관음사자의 좋은 답변에 모두들 박수로 호응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입문과 방편법을 신청했다. 강연이 끝나고 축복과자와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만두가 제공되었고, 몇몇 신청자들은 안동센터에서 입문자들과 저녁 만찬을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은 동수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면서 스승의 축복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스승님의 머리카락으로 밝혀진 비밀

칭하이 무상사
한국 서울 단체명상
2000. 5. 20.
(원문 영어)



최 근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기계를 하나 발명했는데, 그 기계로 검사하면 여러분의 유전정보(DNA)나 질병에 관한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차크라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가서 검사해 보세요. (웃음) 요사이 내가 너무 피곤해 했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발명한 사람을 알고 있던 한 사형이 내 머리카락을 그에게 가져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군 지를 전혀 몰랐고, 그 사형도 머리카락 임자가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 건지도 모른 채 내 머리카락을 가져다 검사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알려줬는데, 모든 차크라가 최고의 수준으로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박수)

완전한 깨달음과 바디코드(Body Code)



또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바디코드(Body Code)라는 걸 밝혀냈는데, 그가 말하길, 나와 같은 바디코드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바디코드를 지닌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고 했죠. 아마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빨리 깨달았나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 불평하고 싶다면 내 바디코드를 불평하세요. 내 짐작에 부치는 아마도 다른 바디코드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바디코드는 깨닫는데 6년이 걸리는 것이었죠. 반면 내 바디코드는 6개월 걸리는 것이고요. (웃음)

이 자리에 그 사형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 동수 가운데 한 사람인데, 원래 그가 나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던 의도는 단지 질병 유무를 검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자가 매우 놀라며 물었죠. “이건 누구 겁니까? 이런 머리카락을 검사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군요. 이건 누구의 머리카락입니까?” 그는 계속 물었어요.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깨닫게 되었는지 몰라요. 사형, 당신이 좀 설명해 봐요. 어제 당신이 내게 알려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

다른 세계에서 온 기계



김 사형(한의사/ 원문: 한국어): 그건 일종의 자기장 진단장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차크라 수치가 4내지 7정도로 나오는데, 스승님의 경우는 21로 나왔습니다. 그 기계로 검사하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주 놀라

며 스승님의 머리카락을 검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고등한 세계에서는 이미 이런 류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계를 발명한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체의 바디코드는 6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검사자는 이런 바디코드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분의 머리카락을 검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이 머리카락의 소유자는 즉각 깨달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계를 발명한 사람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우리와 같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 그는 입문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 머리카락이 나의 것인 줄 몰랐었죠. 검사결과를 본 뒤에야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렇지만 난 김 사형에게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거듭해서 내가 그렇게도 빨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비밀로 하기로 했던 걸 잊고 그만 발설해 버리고 말았군요. 하지만 실은 숨길 것도 없어요.

김 사형: 차크라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이 기계는 깨달은 스승

의 오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후광 등도 역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승: 맞아요. 그것도 측정할 수 있죠. 이 기계는 아주 진보한 기계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검사자는 우연히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검사하는 과정에서요. 내 몸이 금방 더웠다 추웠다 했고, 그래서 옷을 계속 껴입었다 벗어다 했거든요. 내가 체온이 정상적이지 않고 심하게 피곤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형은 내가 혹시 무슨 심각한 병에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머리카락만으로 질병을 알아낼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기계가 발명되었다면서 내 머리카락을 가져다 검사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을 좀 잘라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는 염색된 것이니 검사가 부정확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 출가승이 가지고 있던 옛날 머리카락도 주었어요. 검고 긴 것으로요. 그 사형이 그 둘을 모두 가져다 검사했는데, 검사결과는 둘 다 같았다고 합니다. (박수)

나는 아주 흥분했어요. 사형이 그 기계를 소개했을 때, 나는 단번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았죠. 그리고 그런 기계를 한국에서 발명했다는 사실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건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그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주 높은 세계에서 내려온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유용한 것이죠. 그는 아주 드문 사람이예요. 다른 세계에서 온 과학자일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내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그 사형에게 한 말이니 까요. 이 기계는 아주 진보한 기계라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보통 의사들은 그걸 쓸 줄 모르죠. 그 기계가 마치 컴퓨터처럼 여기 저기 버튼이 달려있긴 해도요. 여러분은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시다.)에 집중해야만 해요. 그는 관음법문을 수행하진 않지만, 다른 명상법을 수행하고 있어요. 아주 깊게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법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내면으로 작동시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다른 몇몇 나라, 즉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는 이런 류의 장비들을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치료실로 들어가 이 기계에서 나오는 자장을 쏘이기만 하면 병이 낫게 되죠. 그러면 고통스럽게 여기 저기 수술할 필요도 없고 많은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어요. 홍법 초기에 포모사에서 동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한 세계에서는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에 관한 얘기였죠. 그들은 빛과 자장을 이용해요. 그건 좀더 진보한 행성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사형도 그 기계를 작동시켜 봤는데, 집중을 잘 했을 때만 기계가

작동되었다고 해요. 검사를 할 때 잡념이 있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건 UF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UFO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작동해야 하나니까요. 손이나 어떤 기계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작동시키고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은 고등한 행성,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와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사실은 내가 그저 피곤한 것뿐이지 어떤 병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박수) 어쨌거나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람은 내 바디코드를 검사해야 했죠. 64가지 바디코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말예요. 사람의 신체는 6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8개 패턴이 암에 걸리는 경우라고 해요. 즉 여러분의 바디코드가 그 8개 유형 안에 든다면 여러분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신체유형이 서로 다른 범주 안에 속해 있어요. 이 8가지 유형은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 유형'이라고 하죠. 이 8가지 바디코드에 속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시다. 암에 쉽게 걸린다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신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좀더 쉽게 암에 걸리고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 바디코드를 검사했다가 그 사람은 내 신체유형이 아주 희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유형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는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니 수십 만, 수천 만의 사람들을 검사했을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이런 기계를 발명했다는 사실과 그토록 깊이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 받았어요. 그는 아주 헌신적인 과학자예요. 미래에는 더 많은 의사들이 이 기계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자들에게 이로움이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검사를 하려고 이리 쪼고 저리 쑤시고 여기저기 꿰맬 필요가 없겠죠. 병을 검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환자들에겐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기계는 아주 간단하죠. 머리카락만 있으면 뭐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의사가 이 기계를 사용할 줄만 안다면요. 그렇지 못하면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한국인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의사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내 몸의 병을 알아내려고 하다가 내 바디코드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리 내가 누군지 알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차크라에 관한 것들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내가 왜 그렇게 빨리 깨달았느냐, 왜 다른 사람과는 다르느냐 등의 질문들을 하다니 참 재밌군요. 왜 부처는 6년이 걸렸고, 또 예수는 그

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등의 질문 말예요. 나도 모르죠. 아마도 내 바디코드 때문인가 봐요. 그 의사가 말하길, 이런 신체유형은 아주 희귀하답니다. 이런 건 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 유형은 언제든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든 깨닫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인가 봐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나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기간이었죠. 사실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집중의 힘



(김 사형: 스승님, 이 기계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계를 발명한 그 의사한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기계는 그의 마음, 즉 그의 헌신과 집중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깐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는 높은 세계에서 지식과 능력을 얻었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김 사형이 말하길, 이 기계로 검사를 할 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잡생각을 하거나 의식이 분산시키면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세요. 집중의 힘이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UFO를 움직이는 것도 마음의 힘,

집중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도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누구, 단 기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미 깨달았어요. 단지 깨달음에 집중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 지를 인식하는 일만이 남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잠시 동안 밖에 집중을 안 해요. 금방 온갖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다 또 잠깐 집중을 하고는 금세 다시 온갖 것들을 떠올립니다. 위대한 자아는 잊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위대함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인식하려면 좀더 집중하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나는 약간 맹목적이었어요. 깨달음에 눈이 멀어있었죠.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히말라야에 가서 더 큰 깨달음을 얻으라”고 한다면, 나는 “아뇨, 됐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당시엔 눈이 멀었었거든요. 나는 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불가능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눈을 떴어요. 지혜의 눈도 열렸구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것만 생각해도 오싹해요. 다신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것처럼 눈이 먼다면, 좋아요. 아마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러

게 말했죠. “오,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아이를 봤나! 내가 저 아이를 보호해야겠구나. 깨달음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저토록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되다니. 그녀에게 깨달음을 줘야겠다. 그래야 죽지 않지.” (웃음) 신이 나를 좀 안쓰럽게 여겼나봐요.

일전에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두 사람에 관한 얘기해 준 거 기억납니까? 한 사람은 스님이었죠.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그는 한 다리를 쇠줄로 묶어 나무에 매달았어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루종일 매달려 있었죠. 그 사람 말고도 깨달음을 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을 가다 그 스님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었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하길, “이렇게 한 다리를 나무에 매달고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안쓰럽게 여겨서 깨닫게 해 준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지푸라기를 좀 구해다가 새끼줄을 꼬아 다리를 매달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스님이 말했죠. “아이구, 저렇게 멍청한 사람을 봤나! 나를 좀 봐요. 이렇게 튼튼한 쇠줄로 묶고 아주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당신이 만일 것처럼 약한 새끼줄로 묶는다면 깨닫기도 전에 떨어져 죽을 거요. 그러니 가서 쇠줄 같은 걸 찾아봐요. 그게 더 안전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됐어요. 그럴 시간이 없대구요.” 그리고는 그냥 새끼줄로 다리를 나무에 매달았는데, 엉성하게 엮은 새끼줄로 묶었으니 당연히 줄이 금세 끊어져 버렸죠. 그때 신이 와서 떨어지는 그를 받아주었어요. 그를 안아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아서 그가 죽지 않게 해주었죠. 그러자 쇠줄에 매달려 있던 그 스님이 불평했어요. “신이시여,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지가 이미 수년이 되었는데도 제 앞에는 한 번도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새끼줄로 엮어맨 이 멍청이한테는 나타나 도와주고 보호해 주시다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가서 매달리지 않기를 바래요. 이건 그냥 우화일 뿐이에요. 나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빌렸어요. 나는 예수나 부처와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죠. 나에 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빌려오면 돼요. 너무 많아서 바닥날 일도 없어요. 부처 시대나 예수 시대에는 시간이 많았고 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매우 바쁘죠. 그래서 즉시 깨닫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늘날은 모든 게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야겠죠.

관음법문은 바디코드를 보완한다



김 사형: 스승님, 바디코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자신의 바디코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요?

스승: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발명가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난 바디코드가 변할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사한테 가져다준 머리카락은 두 종류였거든요. 하나는 어제 자른 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가승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 전, 내가 여전히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을 때 것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건 수행을 해도 바디코드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죠.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수행을 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자장이 바뀌죠. 바디코드는 신체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유형의 사람은 특징의 신체유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형이 뭔가 새로운 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김 사형: 바디코드는 결코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승: 내 생각에 바디코드는 여러분의 외모와도 같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관음법문을 수행함으로써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어요. 얼굴에다 화장을 하고 머리스타일을 좀더 아름답게 바꾸면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것과 같죠. 바디코드가 바뀐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수행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면 아마 암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겠죠. 많은 우리 동수들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수행은 분명 큰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 한 올이 어떻게 그처럼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가?

뉴스그룹/ 한국 (원문 한국어)

스승님이 최근 한국에 머무실 때 심하게 앓으셨다. 그래서 스승님이 편치 않으신 이유를 알아보려고 어느 한의사 사형이 특별한 의료장비를 발명한 사람에게 스승님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다. 이 기계는 'MRT(자기공명인지기)'라고 하는데, 이 기계로 검사를 하면 머리카락 한 올로도 그 사람의 질병상태나 다른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스승님의 머리카락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자는 굉장히 놀랐다. 이런 머리카락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스승님은 단지 피곤하신 것뿐이지 어디가 아프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승님은 매우 순수한 상태이고 스승님의 차크라는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또 스승님의 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이 기계



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검사자는 이런 분의 머리카락을 검사하게 된 걸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는 말하길, 이런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입문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검사 당시 그것이 스승님의

머리카락인지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결과에 관한 좀더 과학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MRT의 기원

문: 우선 'MRT(Magnetic Resonance Tester, 자기공명인지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인체는 미약 에너지 차원의 정보장(자기장)이 있습니다. 오라장(aura),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氣, chi), 대뇌와 장기조직간의 정보전달체계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 장치는 생체자기장 형태, 미약 자기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생명정보들을 읽는 센서가 구비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기공명검사기(자기공명인지기)'라고 합니다.

양방(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비교해 보죠. 양자는 우선 자기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MRI는 가우스(Gauss) 레벨이 아주 높은 단위의 자기를 인체에 방사시켜 그 자기 에너지와 체내의 수분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소와의 공명(resonance)현상을 화상처리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인체만을 대상으로 하죠. 반면에 MRT는 미약한 형태의 생체 자기를 대상으로 인체의 정보를 읽어내는 방

식입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혈액, 소변 등 인체의 파동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간단히 인체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MRA(Magnetic Resonance Angiograph)는 20여년 전에 미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에너지와 에너지간에 주파수가 같으면 공명(resonance) 현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MRT와 하드웨어적으로는 같은 계열인데, MRT가 기능상으로는 훨씬 앞서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토대로 창조적 개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RT는 자신만의 독특한, 독보적인 기능 보이지 않는 세계, 동양적인 관점(氣의 개념 도입), 한의학적인 관점을 추가시킨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체의 극성배열

MRT의 중요한 기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유전체 질검사입니다. 이 장치는 생명체나 자연계의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극성(極性, +-)성향을 감지함으로써 유전적인 신체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즉, 인체의 극성을 배열형태로 인지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6단계까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기본적으로 64가지 유형(64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고유의 극성배열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것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극성배열형태의 특징을 해석하면, 그 사람에 관한 유전정보가 얻어집니다. 즉, 선천적인 체질과 후천적인 질병(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배열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게놈(GENOME)에서의 연구가 구조 형태(DNA구조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에너지 형태로 관찰되는 무형(無形)의 극성정보를 읽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성(+-)을 배열화해서 정보를 읽는다는 이런 원리의 바탕은 주역(周易)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01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은 천연디지털학, 극성배열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극성배열 64패턴론이죠. 첫단계는 무극(無極)인데, 이 무극에서 음양(양극)이 나오고, 이 음양에서 4상(象)과 8, 16, 32, 64패턴이 나옵니다. 여기 8패턴부터는 물질계, 구체적인 현상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이전인 4상(象)은 에너지차원, 정보차원으로 보다 관념적인 범주입니다. 오라, 차크라 등은 바로 여기 상(象)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원리가 구체적인 현상계, 물질세계로 나타나는 과정을 그들 나름의 과학적 표현법으로 설명한 것이 주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MRT가 효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물질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말 인가요?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답: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공명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대상(시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에서 습득한 모발이나 소변, 혈액 등을 통해 검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장비는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물질의 원인자, 다시 말해 물질 이전 단계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기존 과학은 물질 이전 단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은 물질에 기반하고 있고 정신과학은 이런 과학과는 무관한 것처럼 양분되어 왔는데, 사실 물질과 물질의 원인자(비물질)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질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에너지 형태, 이것을 정보라 하는데, 우리는 이 정보를 읽어냄으로써 물질을 파악합니다. 이는 물질을 파악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에너지 센터’라 하는 차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체적 정보의 결집장이라 할 수 있는 오라장(합성파) 역시 에너지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스승님이 깨달으신 정도를 측정하다

문: 그 말은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원래 이 장비는 의료기로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 관심분야는 의학분야로 국한되어 왔지만, 차크라나 오라 역시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코드화, 수치화 할 수 있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검사해 본 결과 너무 많고 깨끗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 차크라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차크라가 열려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장치에 이미 차크라 코드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대중에게 이 부분을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내적 깨달음이 빗줄기의 형태로, 에너지 방사량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비를 사용해 에너지를 읽는 방식으로, 즉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느 정도까지 방사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수치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정도(의식 수준)는 오라장의 형태, 방사정도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계기가 주어진다면 수행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정신적 영역의 기능을 심화하는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즉, 스스로 수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의학적인 분야 외에 아스트랄체(에테르체) 분야에 관한 정보는 이미 코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크라의 경우는 신체와 의식, 이 둘 모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통해 신체적인 정보(체형이나 장기의 기능)와 의식(정신)적인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완전해야 의식도 완전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을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차크라 검사는 신체상태, 질병상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의식 수준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학적인 전망

문: 의학계에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라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답: 이 장치는 인체의 극성배열형태를 6단계로 관찰하는데, 그러면 모두 64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해당 패턴을 관찰하

면 그 사람의 신체에 관한 유전적 정보가 밝혀지죠. 한 예로, 암이 발견되는 유형은 예외 없이 8가지 패턴에 속합니다. 이것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입니다. 백혈병의 경우는 2가지 패턴에 해당됩니다. 이 유전체질검사를 널리 보급하면 암이나 백혈병 등 난치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행하는 조직검사로는 1cm(약개 이상 세포)이상의 종기가 있을 때 비로소 암이 발견됩니다. 즉,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MRA는 극소수의 세포만 있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T에도 역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MRT는 더 나아가 극성배열을 읽는 방법으로 1개의 암세포가 출현하기도 전에 이미 암 발생률을 예지할 수 있습니다. 암은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은 현재 난치병으로 취급되는 것이지만, 조기에 검진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유전체질감별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 극성배열패턴을 통해 총체적인 유전정보를 얻는 것 말고도 어떤 특정코드와의 공명현상을 통해 인체에 관한 특정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MRT에는 총 2300가지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게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시간과 경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MRT는 보다 손쉽고 저렴하고 대중적입니다. 이 장비로는 발암물질 추적도 가능합니다.

문: 질병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 기질상이나 기능상으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자각증상이 있기 전에 이미 질병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소립자들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지요. 병에 걸린 세포는 정상세포에서 기적인 변화, 소립자차원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된 자장, 부조화가 일어나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바로잡는 게 바로 치료가 되겠죠. 정상세포의 코드를 설정하면 정상세포를 발생시키고, 긍정적인이고 건강한 기(氣)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여러 방식을 통해 인체에 전달함으로써 이처럼 혼란해진 정보를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형태(원래의 체질, 선천적인 체질)로 되돌리는 방법, 무극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 등이 또 다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극장(無極場, 극성이 없는 에너지)은 작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부정적인 질병정보는 없애는 반면, 선천적이고 건강한, 긍정적인 정보는 보존시키죠. 그래서 무극장은 인체를 가장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려놓습니다. 수행을 잘하면 모든 질병이 저절로 낮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완전한 것은 무극입니다. 스승님은 무극공명도가 최고치인 21로 나왔습니다. 무극공명도 수치로도 수행의 정도(의식 수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 이 연구 성과가 어떤 방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답: 현재는 주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생명(유전)정보를 얻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디서든 응용이 가능합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출입관리(세관) 등이 되겠죠. 한 예로, 이 장비를 사용하면 식품의 중금속 함유도 검사나 약재의 특성 및 순도검사를 아주 간단하고도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 집중상태에 있지 않으면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 정보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분석자의 산란한 정신나 동작이 잡음의 형태로 관여될 수가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 자세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만 잘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TV에서 연재한 영화들 중에서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스승님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던 때가 생각났다. 이 영화는 한 팀을 이뤄 달로 탐사를 가는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다룬 이야기이다.

우주선이 막 뜨기 직전, 그 팀원 중의 한 명이 홍역에 전염되는 바람에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우주선을 타게 된다. 다음 순간, 우주 비행은 비운을 맞는다. 달에 착륙도 하기 전에, 얼마 안 있어 사고가 일어나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에 처한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주선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승무원실은 기온이 떨어지고 우주선 자체는 점점 궤도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귀환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또한 떨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지능에 대한 가장 심오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끝이 없이 넓기만 한 우주 공간에서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방도를 찾기 위해 함께 고투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면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나, 동시에 비밀스러운 우주를 탐사하려던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깊이 낙담하여 달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지구에서는 일류 과학자들이 우주미아가 되어버린 우주비행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전 인류가 우주비행사들의 무사를 위해 기도했다. 결국 그 우주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우주선이 뜨기 전) 교체되었던 우주조종

사가 팀원들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의 우주선 훈련 장치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다른 우주비행사와 교체되었던 것이 신의 안배였음을 보여준다.

평소, 한편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스승님께서도 또 다른 영화를 보고 싶으신지 물어보곤 하셨는데, ‘아폴로 13호’를 보시고 난 후에는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셨다.

마치 스승님 역시 심신으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겪은 고투로 괴로워하시는 듯 했으며,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인간이 치뤄야 하는 대가를 보시고는 슬퍼하셨다.

인간은 단지 우주의 작은 부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지성과 경제적인 자원을 소모하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한다. 그리고 불행히도, 깨달은 스승이 이 지구에 살아 계시며, 단 1센트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우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범문인 관음법문을 전하고 계심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께서 주신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한 것인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자 함은 인류의 영원한 갈망이다. 그러나 인류는 세상의 과도한 기술로 영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면을 간과해왔다. 오직 우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깨달은 스승의 영광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 우주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테이프

<영어+일본어 자막>

298 천국은 성인의 내면에 존재한다

포모사 산티먼 단체명상 1992. 12. 26

<영어+한국어 자막>

348 스승의 힘이 깨달음을 가져온다

미국 시애틀 강연 1993. 4. 7

<영어+헝가리어 통역+한국어 자막>

652 우리의 진정한 본성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연 1999. 5. 24

<영어+태국어 자막>

260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미국 유엔 강연 1992. 6. 26

<영어+프랑스어 자막>

467 이 세상의 고통은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싱가폴 강연 1995. 1. 10

493 입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독일 함부르크 국제 선삼 1995. 8. 25

<영어+스페인어 자막>

397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연 1993. 11. 27

<영어+포르투갈어 통역+스페인어 자막>

645 신과의 교류 (1& 2)

포르투갈 리스본 강연 1999. 5. 7

<영어+노르웨이어 통역+중국어 자막>

661 신과 일체된 삶

노르웨이 오슬로강연 1999. 6. 2

<영어+스웨덴어 통역+중국어 자막>

655 어린이의 순진함으로 돌아가라 (1& 2)

스웨덴 스톡홀름 강연 1999. 5. 31

<영어+폴란드어 통역+중국어 자막>

657 우리모두 밝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1& 2)

폴란드 바르샤바 강연 1999. 5. 11

스승님의 출판물 주문은 다음 주소로 해주십시오.

포모사 타이페이 칭하이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wisdom@m2.dj.net.tw

ROC Postal Remittance Account No:

19259438

Postal Account: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Publishing Co., Ltd.

* 멕시코 벨라크루즈

LA GULA DE GULIS (동수 경영)

Bravo #847 Entre Canal y Esteban Morales C.p.: 9170

Veracruz, Mexico

전화: (0129) 14-06-21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입문 전과 후

정 사제/ 중국 대륙

올해 3월 저는 새롭게 입문하였고 그 후 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입문 전과 후로 제 인생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문 직후 사오 일간 양어머니는 제게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지난 수년간 듣지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 하셨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지난 27년 동안 저희는 서로를 미워했고 거칠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저희는 서로를 이렇게 잘 대해 주는 것일까요? 가장 이상했던 일은 입문한 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저는 발걸음도 가볍게 경쾌히 집에 돌아왔고 양어머니는 미소 짓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은, 놀랍게도 전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양모가 제가 직장에서 피로하지는 않았는지 걱정해 주셨고 저를 위해 식사준비도 해주셨습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따로 사용하자고 제가 주장했을 때, 양모는 제가 까다롭고 터무니없다고 나무랐지만, 입문 이후로 고기를 먹은 후엔 그녀의 젓가락으로 내 접시의 야채도 집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커다란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스승님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양모는 수년 동안 이기적이었고 고집이 섰었지만 지금은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때에 명상도 하게 하고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시며, 명상중에는 방문을 잠그는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방문을 잠그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무때고 방에 들어와서 제 가슴을 철렁 뛰게 만들곤 했었지요. 하지만 제가 스승님으로부터 입문을 받은 즉시 그녀는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종일 미소를 띄지요. 아마 그녀 자신도 자신이 왜 이리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제가 스승님의 책을 읽거나 오디오를 들을 때면 관심을 보이곤 하였는데 지금은 스승님에 대한 최신 소식을 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그녀에게 알려주지요. 아마도 그녀의 내면의 스승이 깨어난 듯 합니다.

과거에 양어머니에 대한 제 전략은 ‘눈에는 눈’ 식이었지요. 그녀가 저를 무시하는 대로 저도 그녀를 무시하였고 매우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입문 후 며칠 동안 저는 끊임없는 축복으로 가득찼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양어머니가 매우 외롭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요. 저는 매우 놀랐고 난생 처음으로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녀는 거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다른 이와 나눌 사랑도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당신의 사랑속에서 목욕한 후에야 저는 겨우 양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양모가 얼마나 외로웠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노인 들도 사랑과 관심, 사람들과 얘기 나눌 기회가 필요하지요.

입문 전, 제 가슴은 꼭꼭 닫은 채로, 오직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양어머니에게 잘해 줘야지. 그녀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내가 그녀를 부양해야 돼. 지금부터 내가 그녀를 돌봐야 해. 스승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상대방이 이 진실한 포용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려면 가슴을 열어 야 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양모와 저는 지금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수생 동안의 저희의 입장을 씻어주셨으므로 저희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애로운 스승님께서 저희 둘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흐름으로 내면의 증오심을 씻어주셨습니다.

내면의 체험에 관해서, 입문식 중에 저는 매우 좋은 체험을 하였답니다. 네다섯 번 정도 광선이 눈부신 공 모양으로 점점 커지며 저를 눈부시게 하였지요. 소리를 관할 때는 마치 제가 행진하는 군대에 둘러싸인 듯 커다란 천둥의 파열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사한 체험으로 계속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때로 소리에 대해 명상하는 중에 빛을 볼 때도 있었고요. 빛과 소리, 양쪽 모두의 명상에서 저는 좋은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관조는 막사위를 한 것처럼 저를 편하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입문 후, 삼사 일이 지난 뒤, 저는 흰옷을 입은 한 아름다운 부인이 꽃밭속으로 들어가 활짝 핀 꽃 속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녀가 매우 밝은 빛을 발했고, 깨어난 후 상쾌하고 고양됨을 느꼈기에 그 부인이 스승님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며칠 뒤, 명상 후 잠에 들었는데(스승님은 잠들기 전 명상을 하면 명상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제게 칠판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고 글을 쓰기 위해 칠판을 약간 움직일 필요가 있었지요. 하지만 전 학우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고의로 칠판을 넘어뜨렸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돌연, 제 귀로 다음과 같은 말이 또렷이 들려왔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가?” 이 말의 의도는 수정처럼 명확했고 전 제 자신을 교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경고를 준 것은 내면의 스승님이셨습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스승님의 손에 맡긴 이후로 스승님은 저를 교화하려 하였고 저는 즉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스승님이 제 옆에 앉아 계산 꿈을 꾸었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스승님은 제 배를 주물러 주셨고 그 즉시, 제 생명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승님은 제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고 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스승님, 당신은 정말 제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군요” 스승님 저는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생에서 제가 당신을 따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입문 전에는, 스승님의 견본서를 읽은 후, 바로 그날 저녁 고기 먹는 것을 끊었고 내면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진에 있는 스승님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했지요. 꿈속에서 당신이 저를 안아주셨을 때, 제 몸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복숭아 모양의 가슴에서 매우 밝은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체험들을 가졌지요. 스승님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스승의 돛수

칭하이 무상사/ 캄보디아 1996. 5. 14. (원문 영어)



대학 부근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항상 보았어요. 그런데 똑똑해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아, 나도 안경을 쓰면 이해력이 커질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점원이 “돛수가 얼마나 높죠?”라고 묻자 그는 “스승의 등급을 원해요”라고 말했어요. 점원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가장 높은 돛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가장 돛수가 높은 안경을 주었어요. 그 남자는 안경을 쓰자 어지러워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죠. 여러분의 시력이 좋은데도 안경을 쓰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지요. 그가 “이 안경은 무슨 안경이에요?”라고 묻자 점원은 “당신이 스승의 돛수를 원했잖아요. 안 그래요?”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 남자는 안경을 쓴 채로 “좋아요. 내게 책을 줘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점원이 그에게 책을 한 권 주었지만 그는 책을 거꾸로 들고 읽었어요. 그는 책장을 계속 넘기면서 “전혀 읽을 수가 없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라고 물었고 점원은 “영어인데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정말요? 그런데 왜 내가 읽을 수가 없죠?”라고 대답했어요. 점원은 “이렇게 읽으셔야죠, 손님!”하면서 책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려 주었어요. 그래도 그 남자는 “어째서 여전히 읽을 수가 없지? 이 안경은 무슨 안경이죠?”라고 물었고 점원은 “그건 독서용 안경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당신은 내게 고장난 안경을 준 게 틀림없어요. 나는 이 안경으로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으니까요”라고 말했어요. 점원은 “하지만.....당신이 까막눈이라면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없다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왜 안경이 필요하겠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칭하이 무상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1994. 3. 12. (원문 영어)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칭하이 스승이 언제나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강연을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의 강연 첫날 강연홀에는 백 명 가량의 청중들이 모였어요. 그가 “여러분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제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주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고 묻자 청중들은 “아뇨, 몰라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모르신다면 내일 다시 여기에 오세요. 그럼 제가 말해 드리지요”라고 했어요.

다음날 모두들 다시 왔고 그는 같은 질문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죠. “알아요.” 그러자 그는 “이미 아신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을테니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그가 다시 왔을 때는 소수의 사람만이 다시 참석했어요. 그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청중들은 몹시 화가 났고 두 집단으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알아요”라고 대답했고 다른 한쪽은 그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눈에는 눈

칭하이 무상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1994. 3. 12. (원문 영어)



바보 3의 딸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바보 1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딸이 짐을 싸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바보 3이 딸에게 물었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집에 온거니?” 딸은 “남편은 언제나 나를 야단쳐요.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 날 때려요!”라고 말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바보 3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딸에게 가서 빵을 때렸죠. 딸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이럴수가! 어떻게 아버지까지 날 때릴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죠. “너는 집에 가서 네 형편없는 남편에게 말해줘라. 그가 내 딸을 때렸기 때문에 나도 그의 마누라를 때려주었다고!”



점점 더 위대해지는 법



칭하이 무상사/ 미국 캘리포니아 1989. 5. 25. (원문 영어)

보다 차원높은 존재의 경지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수준높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고차원의 역량에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보다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98. 12. 18. (원문 영어)

여러분이 진아를 기억하는 것을 세속의 문제들과 개인적인 습관들이 방해하도록 놔두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품성을 갖고 다가갈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진아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지평은 넓어지고 자아는 확장되어 여러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멕시코 멕시코 시티 1998. 5. 23. (원문 영어)

우리가 사랑에 중독되었을 때 우리는 시인처럼, 음악가처럼, 천사처럼, 아주 고상한 천상의 존재처럼 변합니다. 우리는 걷는 대신 공기 속을 떠다니지요. 우리는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 숨쉴니다. 우리는 두뇌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말 없이도 사랑의 언어로써 이야기를 나눕니다.

포모사 소식

10대 청소년 보살피기

【화렌】 용선 축제 전야에 헬리언 센터는 휘모사 후생 복지 지역장과 헬리언 검찰관의 후원을 받아 청소년을 보살피는 활동을 펼쳤다. 입문자들은 젊은 장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가지고 돌봐줄 가족들이 없는 보호소의 청소년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독 성결 선교회의 청소년 보호소에 도착했다. 보호소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 성결 선교회도 신의 사랑과 박애를 사람들과 조용히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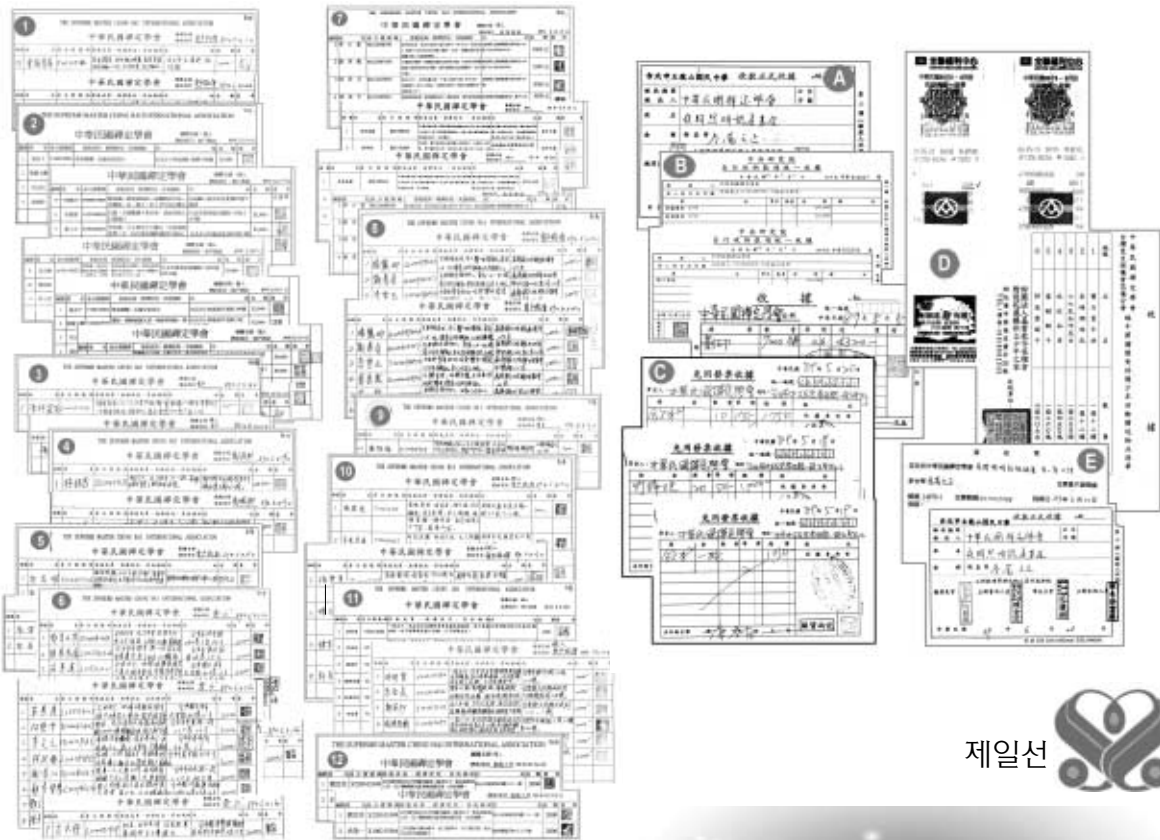
2000년 5, 6월간 휘모사의 가난한 가정을 위한 구제기금

2000년 5월			2000년 6월		
장소	가구수	금액(NT달러)	가구수	금액(NT달러)	첨부
기룡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10	26,000	9	24,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추	1	3,000	1	3,000	4
미아오리	2	6,000	2	6,000	5
타이충	8	17,000	9	20,000	6
난토우	7	24,200	7	24,200	7
치아이	6	13,000	6	13,000	8
타이난	1	3,000			9
카오핑	3	7,000	4	11,000	10
타이룅	6	14,000	6	14,000	11
평후	2	4,000	2	4,000	12
합계	48	NT\$121,200	48	NT\$123,200	

2000년 5, 6월 포모사의 가난한 가정을 위한 구제기금 10대 청소년 보살피기

장소	일시	활동내용	금액	비고
타이베이	2000.5.1	타이베이 시 룽산 고등학교 야간점등 기금	30,000	A
타이베이	2000.5.6	시니카 학회 세미나에 칭하이 무상사께서 참가	12,220	B
미아오리	2000.5.21	시후 지역 모임에서 주최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협동하여 28번 고속도로 청소	3,800	C
화렌	2000.6.5	기독성결 선교회 청소년 보호소에 용선 축제 선물	6,288	D
타이베이	2000.6.28	타이베이 시 룽산 고등학교 야간점등 기금	30,000	E
		합계	NT\$82,308	

2000년 5, 6 월간 휘모사의 구호 및 자선 활동 지출경비는 총 326,708 NT달러(대략 10,539 US달러) 이다.



새 관음 비디오 웹사이트

<http://www.Godsim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다국어)

리키 사형/ 미국 오래건 포틀랜드 (원문: 영어)

인터넷은 전 세계의 소식을 공유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므로 여러 동수들은 관음법문을 소개하고 스승님의 지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비디오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작년 말에 시작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의 제한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접속 속도에 따른 서로 다른 세 개의 대역폭, 28km 56k 그리고 100k,에 맞춰 비디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대역폭의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디오 자료들은 Windows Media Video와 Real Video의 두 가지 포맷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거친 것입니다. 금년 삼월, 우리는 마침내 우리 사이트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스승님 소개, 영적 음악, 아프리카 순회강연, 유럽 순회강연 그리고 다양한 내용의 다섯 개로 분류된 비디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스승님의 지혜를 만끽하고 여러분의 진아를 알기 위한 여행을 시작코자 저희 비디오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 - 중국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 - 중국어/ SMCH서점)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 일본어)
<http://www.Godsdirectkontak.org>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 - 중국어 간체자 및 번체자, 영어, 한국어, 어울락어)
<http://mason.gmu.edu/~lduan/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members.tripod.com/~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 -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자 및 번체자)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 -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 (미국 -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 - 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지원)
<http://www.members.xoom.com/meditations/GodsDirectContact.html> (미국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 - 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 - 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 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service 제공 -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 - 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 - 독일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 - 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 - 스웨덴어)
<http://freespace.virginnet.co.uk/smch.ma/Godsdirectcontact/Persian.htm> (영국 - 페르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영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
 뉴스그룹: lovesrc@Godsdirectcontact.org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중국어 번체자 :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14/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4/>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ch/news/114/index.htm> (미국.)

중국어 간체자:

http://Spiritual-Discovery.org/gb_chinese/news/114/index.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4/index_gb.html (미국.)

영어 :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english/114/>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4/> (미국.)
<http://godsmediatecontact.net/news/news114/>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14/index.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14/index.htm> (포모사)

Aulacese :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lac/news/\(VNI,VPS,VISCII and VNU 활자\)](http://www.godsdirectcontact.org/aulac/news/(VNI,VPS,VISCII and VNU 활자))
<http://godsmediatecontact.net/aulac/n114/> (VNI 활자)

Spanish: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spanish/\(U.S.A.\)](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spanish/(U.S.A.))

Japanese:

<http://www.Godsmediatecontact.org/kannon/news/newsindex.htm> (U.S.A.)

French: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News/index.html> (France)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칭하이 무상사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1989. 5. 25 (원문 영어)

신에게로 가는 길은 왜 그토록 좁은 걸까요? 그 길은 심지어 면도날처럼 너무나 예리하고 가팔라 걸어가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신에게로의 길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욕망이나 유혹에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양에서 헤엄치는 동시에 우리의 옷이 젖지 않도록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유혹과 갈등과 부대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시에 올바른 규율과 순수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척이나 향기로운 연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 속의 성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1989. 5. 27 (원문 영어)

부정적인 힘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 없이는 수영을 배울 수 없고, 어떻게 헤엄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나 도로, 운전규칙 등이 없다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능숙하게 운전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혹은 우리가 극복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역량은 보다 강력해질 것입니다.